

# 도시가계의 가계자산투자행태 및 관련변수

The assets investment of urban households and related factors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손 주 영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숙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ohn, JooYo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Professor : Lee, Yon Su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assets investment behavior of urban households and find the factors affecting it. The data were obtained from 442 households living in Seoul.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this study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logistic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ownership of household assets were affected by age, education, total income, total asset, the number of income source, income stability, the financial expectations, past financial experiences and the job of household head. Second, amount of household assets was affected by husband's age, education, unearned income, total asset, income stability, the expectation of future, the past financial experiences and the job of household head. Third, ratios of household assets were affected by age, education, unearned income, family size, the number of income source and the job of household hea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b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practitioners and education.

## I. 서론

우리 나라의 경제는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6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개인가처분소득이 7,817원(1975)에서 227,141원(1995)으로 증가하였고(1997 한국의 사회지표) 이에 따라 가계의 경제 상태나 소비생활도 60년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 체계는 서구와 같은 안정적인 상태로 아직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나 OECD가입과 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저하,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및 민간소비의 위축에 이어서 최근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공황상태가 발생하고 IMF자금지원에 따른 물가상승과 대량실업이 전망되어서 국가경제가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제도의 다각적인 개편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도되면서 전체적인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불안한 현상을 낳고 있다. 특히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도와 기업체의 고용조정으로 명예퇴직이나, 실업률 증가, 취업난과 같은 사회적 현상은 가계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생각되던 고용구조가 능력위주와 효율위주의 고용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80년대 계속 증가되어 오던 5년이상 장기근속자수가 96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감소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1997 한국의 사회지표, 1998).

이와 같은 고용불안과 높은 실업률은 장래소득의 확보를 불확실하게 하여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불안은 가정의 소비수준과 경제생활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신한리뷰, 1998).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가계의 투자행동은 가계의 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가계의 투자행동은 가계의 목표달성의 한 수단으로 가계의 재정자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계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투자행동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Weagley와 Gannon, 1991; Xiao 1995; Hanna와 Chen,1996; 강혜경, 1990;

양정선, 1991; 정은주,문숙재,1992).

가계투자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가계가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상담을 위해서 가계투자행동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계투자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금융자산, 위험자산, 비 위험자산에 치중되어 있어 가계자산투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가계가 어떤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각 자산의 구성 비율은 어떠한지 이러한 자산 보유액과 구성비율은 가계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를 파악하는 것은 가계의 투자행동 교육이나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소득이나 직업의 안정도 정도에 따라 가계자산의 보유와 구성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계투자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과 직업 안정 수준에 따라 가계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조사하고, 이런 자산 구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재무상담자들에게 재무관리상담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시도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가계의 자산구성이 얼마나 소득 안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고 그 가계특성에 맞는 자산관리를 유도하여 가계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도시가계가 소득의 안정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요소에 의하여 소득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계자산투자에 관한 이론

#### 1) 가계자산투자의 개념

가계투자란 처음 가계에서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부수적인 소득을 기대하고 다른 형태의 자산(wealth)을 사기 위해 금전을 사용한다는 개념(Lee와 Zelenak, 1987)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가계투자는 현재소득에서 일부의 소비를 연기하여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저축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Keyens의 저축 및 투자의 개념에 따르면 저축을 가계의 자산증식을 위해서 행해지는 경제적 행동으로서 투자와 같은 의미로 보았다(이승신 외 4명, 1996에서 재인용). 실제 재무상담 프로그램에서 저축은 비상금과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서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안전하고 환금이 쉬운 방법을 택하는 반면에 투자는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것으로 위험성이 있지만 이율이 높은 상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Kansas State U., 1996).

Garman과 Forgue(1994)는 투자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무관리행동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투자에서는 원금과 이자의 보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저축투자(savings investments)와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로 나누고 대체투자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보다 큰 수익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

강해경(1990)은 가계투자는 저축으로 형성된 화폐자본을 확대 및 재생산을 위해 실물자본으로 투입하여 전환하는 경우와 금융자산에 투입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양정선(1991)의 연구에서는 저축을 소극적인 의미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이고 투자는 그에 비해 적극적인 자산증식 행동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현대 경제학에서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Ramaswami, Srivastava와 Mcinish(1992)의 연구에서 가계가 가지는 장·단기 재정목표에 따라 주식보유를 장기적 투자시간을 갖는 미래대비 투자로 인식하였고 저축 등은 현재의 생활수준 유지와 미래의 투자 모드를 위한 자산보유라고 설명하였다(Xiao, 1995).

## 2) 가계자산의 유형 및 특성

가계투자의 대상이 되는 가계자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 환금성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가계자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주식의 경우는 대체 투자의 하나이면서 수익성은 높으나 안전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80년대 이후 매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공개가 줄을 잇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주식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또한 부동산 투기가 제제받기 시작하면서 여유자금이 주식으로 몰리고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투자도 가계투자의 대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보험은 사고나 재난과 같이 예기치 못한 개인적인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복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자산의 증식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자산에 닥칠 위험에 미리 준비하여 자산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하나로 본다. 또한 연금의 성격을 띤 보험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로 미래의 소득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험은 보장성이 강조되는 상품으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민감한 가계에서 선호할 것이다.

채권은 정부나 금융회사, 일반회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서 종류가 다양하고 이율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가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안전성이 있고 이율도 비교적 높아서 잘 이용하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통, 투자신탁이나 은행의 신탁계정으로 위탁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박연수, 1997: 188). 이러한 채권에는 발행자에 따라서 크게 국·공채와 회사채로 나누어진다.

은행 저축은 가까운 장래에 필요한 돈을 위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과 중·장기에 걸쳐 목돈마련을 하기 위한 저축성 예금과 적금이 있으며 이들의 수익률은 다른 자산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안정성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자율에 대한 자율화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은행간의 경쟁의 심화로 저축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부동산도 가계투자에 포함되는데, 이는 환금성이 매우 낮고 투자시 일시에 거액이 든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투자와는 성격상 매우 틀리고 금액의 차이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저축의 목적이 주택구입이나 더 나은 주택으로의 이전을 위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의 부동산 투자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금액을 가계투자에 포함시켰다.

### 3) 가계자산 투자행태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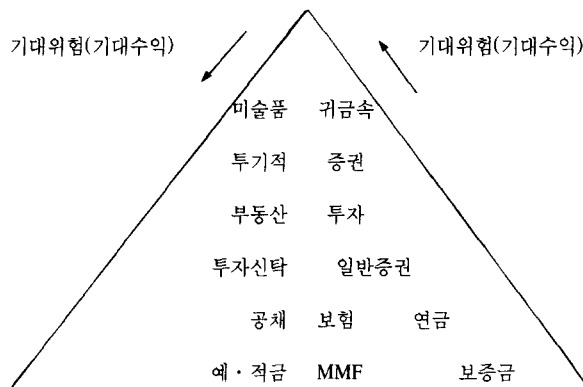
기업투자에 대한 이론에서 투자결정은 투자를 함으로써 얻어질 수익이 확실하게 정하여진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익이 확실하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선택할 것이므로 효용함수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에 수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대되는 수익에 위험 발생을 고려한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판단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기대효용함수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장하성·지청, 1995: 177).

가계투자가 기대효용함수를 따른다고 할 때 위험

과 이익에 대하여 가계가 어떻게 행동할 지에 대한 이전의 연구를 보면 보통 피라미드 모형(그림 1)로 설명하고 있다. 가장 기초에는 보수적인 투자유형으로 위험성은 가장 낮지만 안전한 은행예금등을 말하고 다음의 윗 단계는 위험은 늘지만 이익이 높아지는 보험이나 연금, 채권 등이 속한다. 이렇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익도 높아지는데 기초가 튼튼하여야 그 위의 투자나 투기로 인한 손해에도 어려움을 받지 않는다(Wegley 와 Gannon, 1991).

투자행동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자산선택이론의 하나인 포트폴리오 이론은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균형이론의 기초라고 하겠다(김순미, 1987). 포트폴리오란 여러 개의 자산으로 나누어 총자산을 보유한다는 의미로, 보통의 경우에 부동산, 은행예금, 주식의 세가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영향에 비교적 안정하고 은행예금은 환금성이 좋고, 주식은 위험성이 있는 대신에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분산시켜서 수익성과 안전성, 환금성을 어느 정도 갖추려는 의도 때문이다. 재무관리에서의 포트폴리오 목적은 새로운 투자대상을 만들어 투자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넓혀서 효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서로 다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분산효과를 얻어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장하성·지청, 1995: 237). 여기에서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림 1〉 가계투자의 선택위험의 피라미드



출처: Wegley 와 Gannon (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p.133

는 의미는 각기 다른 위험수준, 즉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로 나타나는 위험정도를 여러 자산으로 분산시켜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계에서 자산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선택행동으로 감소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투자자산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시장위험(Market risk)으로 가계별로 그 특성에 따라 그 영향도는 달라진다(Garman과 Fogue, 1994). 또한 가계별의 특성에 따라 위험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기 때문에 기대효용함수에서 차이를 가져와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개별가계의 자산선택 행동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 2. 가계자산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1)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연령 및 생활주기 변수는 저축이나 순자산에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연구(Heffran;1982, Titus, Fanslow와 Hira;1989, Hogarth;1991, Chang과 Hanna;1994, Chang;1994, 양세정과 이영호;1996)가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Xiao와 Malrou;1994, Weagley와 Gannon1991)도 있었다. 또 부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Mirer;1979)

자산종류별로 연령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saving계좌와 저축계획(Saving Plan)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고 그 외의 자산과는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Xiao;1995) 연령은 채권보다는 주식소유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Zhong과 Xiao;1995) 나이가 65세이상인 가계가 재정자산(Financial Asset)과 투자자산(Investment asset)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일반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와 Hanna;1995). 위험자산의 보유는 연령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정은주와 문숙재;1992).

교육수준 변수는 저축수준과 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Davis와 Schumm;1987, Xiao;1995, 양세정과 이영호;1996) 부동산비율보다 은퇴자산비율

에 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Weagley와 Gannon;1991) 신탁이나 주식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하여 부적인 경향을 보인 연구(Xiao와 Malrou;1994)와 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연구(Zhong과 Xiao;1995, 정은주와 문숙재;1992)가 있었다.

일정기간 내에 가계로 유입되어 가계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화폐가치의 총량으로서 가계소득은 저축수준과 순자산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Katona;1974, Heffran;1982, Davis와 Schumm;1987, Titus, Fanslow와 Hira;1989, Chang과 Hanna;1994, Xiao;1995;1996, 양세정과 이영호;1996)

직업은 분류기준이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경향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저축이나 자산소유가 많았다(Chang과 Hanna;1994, Xiao와 Malrou;1994, Xiao;1996). 정은주와 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관리직이 위험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이 위험자산을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었고 양세정과 주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안전지향형은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인간관계중시형은 자영업자가 유비무환형은 봉급생활자 가구가 취하는 저축유형이었으며, 양세정과 이영호(1996)의 연구에서 저축률은 봉급생활자가구가 일용근로자가구에 비해 높았고 저축액은 봉급생활자가구에 비해 자유직업자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김정숙(1996)의 연구에서는 자영업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하여 높은 저축률을 보였다.

취업자수는 Chang과 Hanna(1994)의 연구에서는 저축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지만 Hefferan(1982)의 연구에서 유동자산 비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수는 양세정과 이영호(1996)의 연구에서 취업자가 1인인 가구에 비해 2人以上인 가구의 평균저축률이 높은 반면에 저축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기간 소득의 일부가 축적되어 형성된 가계자산은 저축이나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나타났다(Hefferan;1982, Hogarth;1991, Weagley와 Gannon;1991, Lee와 Hanna;1995, 정은주와 문숙재;1992)

## 2) 소득 및 직업안정도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안정도를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가에 기준하여 안정적 소득과 안정적이지 않은 소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Sullivan과 Worden:1986) 기대소득의 실질적 측정을 위한 소득 변동성(Income Variability)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Chang과 Lindamood;1993, Chang과 Hanna;1994),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득안정측면과 객관적인 소득의 증가로 측정하는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Voydanoff, 1990; 황덕순, 1993). 본 연구에서는 Voydanoff와 황덕순 연구에 기초하여 소득안정도를 개별 가계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소득안정도와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 기초한 객관적 소득안정도를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직업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종사하는 직업의 전체평균 이직률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직률의 산업별 구분은 있지만 직업별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느끼는 직업에 대한 안정도 정도가 상이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Voydanoff나 황덕순의 고용불안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개인의 실업경험과 현재 직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간 및 현재 직업에서 승진이나 보다는 직업으로의 이동 전망을 측정하여 직업의 안정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득이나 직업안정도는 가계자산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tona(1974)는 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을수록 저축이 늘게 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는 그 증가에 따른 만족의 정도에 따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Davis와 Schumm(1987)은 저축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계의 다른 여러 활동에 비하여 재정적 안정도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는데 재정적 안정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길수록 저축수준은 낮아서 부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다.

Chang과 Hanna(1994)의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확

실성 정도 및 기대되는 소득 증가정도는 가계저축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대소득 증가수준이 \$5,000일 때와 \$1,000일 때 저축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기대소득이 \$1,000으로 감소한다고 할 때, 저축수준은 연령에 따라 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채권과 주식소유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한 Zhong과 Xiao(1995)의 연구에서 소득에 대한 기대는 채권소유와 주식소유와 부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어서 소득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수록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소유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심리적 변수

과거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보다는 심리적인 측정이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를 보다 정확하게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Katona(1974)는 주장하고 있다. Chang(1994), Chang과 Hanna(1994)의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한 수용정도가 저축증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가계 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행동을 체계론에 기초하여 연구한 양정선(1991)의 연구에서는 요구변수로 상대소득수준 인지가 상대적으로 저축액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저축률은 형성기의 가계가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할 때 증가하고 총저축은 축소기의 가계가 자신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을 높게 인지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주와 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성취동기를 측정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영향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성취동기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가계자산 소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가계자산별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 소득과 직업안정도, 심리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계자산 구성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 소득과 직업안정도, 심리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직업을 두거나 생활환경으로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재무관리자로 다양한 직장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전공교수 2인에게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본 조사에 앞서 1997년 10월 11일에서 27일 까지 가계관리 담당자 130명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하였고 본 조사는 1998년 2월 10일에서 3월 7일 사이에 질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650부를 배포하여 493부(회수율 76%)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부실기재된 51부를 제외한 44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조사도구의 구성 및 측정방법

### 1) 소득안정도와 직업안정도

주관적인 소득안정도에 대한 측정은 미래 소득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1문항과 현재소득에 대한 만족 정도에 관한 1문항으로 측정을 하였다. 객관적인 안정도는 도시가계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9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사가계의 월평균소득이 속하는 집단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최저 4점에서 20점까지 나타났는데 중간점수 12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소득에 대한 안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이보다 낮으면 안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75(표준점수 .76)로 나타났다.

직업 안정도는 과거에 실업의 경험과 기간을 묻는 객관적인 문항과 직장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도와 재취업에 대한 주관적인 문항을 근거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5)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4가지 점수를 합산하여 직업안정도를 계산하였는데,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으로 나타났다. 중간점수 12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직업안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이보다 낮으면 직업안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77(표준점수.81)으로 나타났다.

### 2) 심리적 변수

경제생활 상승감은 현재 자신의 경제생활 수준을 5년전의 경제생활에 비교하여 어떠해졌다고 느끼는가를 나타낸다. 현재 경제생활수준의 점수에서 5년전의 점수를 빼서 0이면 상승감을 5점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0에서 10까지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5점보다 높으면 자신의 경제생활 수준이 상승하였다고 느끼는 집단으로 그보다 낮으면 자신의 경제생활 수준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문항의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값이 0.63이다.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한 기대감은 5년후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느끼는가를 나타낸다. 5년후에 전망되는 생활수준점수에서 현재의 경제생활수준 점수를 빼서 그 차이가 0인 경우를 중간점수 5점을 주고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5점보다 높으면 자신의 경제생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으로 그보다 낮으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82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전반적인 수준에 비하여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가를 나타낸다. 친구와 이웃, 형제자매, 일반사회에 대한 수준을 묻는 문항 점수의 합에서 자신의 경제생활수준 점수에 4를 곱하여 점수를 빼서 그 차이가 0이면 중감점수 5점을 주고 최저 0점에서 최고 11점까지의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5보다 점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못산다고 느끼는 집단으로 그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잘산다고 느끼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83으로 나타났다.

### 3) 가계자산의 유형

가계자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예적금 : 은행, 신용금고, 우체국, 보험회사의 예금, 적금, 부금
- (2) 신탁 :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 (3) 보험 : 손해보험, 생명보험, 교육보험 등
- (4) 개인연금 :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 (5) 유가증권 : 주식, 증권저축
- (6) 부동산 : 주택, 아파트, 토지, 상가, 빌딩

### 3.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을 이용하여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여러유형의 자산소유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Logit분석을 이용하였고, 가계자산 소유금액과 비율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중다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소득안정도 및 심리적 변수의 분포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 2. 자산별 소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계가 여러 유형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Logit 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가계자산을 소유하는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spsswin Logistic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측정된 Parameter는 독립변수의 한계효과와 크기 대신에 방향을 나타내 준다(Xiao;1996). 모형의 설명력은  $\rho^2$ 를 통해 측정하

였다.

우선 예적금은 교육수준과 상승감이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승되었다고 느낄수록 예·적금등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Xiao(1996)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신탁은 연령과 기대감이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에 교육수준과 소득안정도는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가 높을수록, 신탁상품을 소유하는 경향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Zhong과 Xiao,1995; Lee 와 Hanna,1995)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신탁상품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Zhong과 Xiao,1995; 정은주 와 문숙재,1992). 소득안정도가 높을수록 신탁상품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Zhong과 Xiao(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보험은 경제적이대감이 높아질수록, 사무관리직과 자영업자가 보험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연금은 경제적상승감이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승되었다고 느낄수록 개인연금을 소유하는 경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은 경제적 상승감 변수가 의미있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상승했다고 느낄수록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에서는 공무원과 고위관리직의 경우에 소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randt 와 Olson(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직업별로 부동산소유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총자산의 규모는 부동산 소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총자산이 많아질수록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의 80%정도를 부동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의 변동은 총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 단	N(%)	변수	집 단	N(%)
연령	34세이하	103(23.3)	소득	125만원이하	26(5.9)
	35~39	113(25.6)		126~180만원	61(13.8)
	40~44세	120(27.1)		181~230만원	76(17.2)
	45~49세	50(11.3)		231~335만원	106(24.0)
	50세이상	56(12.7)		336만원이상	173(39.1)
	평균(SD)	41.4(7.6)		평균(SD)	341(220.4)
직업	전문직	19(4.3)	총자산	10000만원이하	120(27.1)
	교육자 및 예술가	59(13.3)		10001~17500만원	119(26.9)
	공무원	27(6.1)		17501~22500만원	86(19.5)
	고위관리직	35(7.9)		22501~32500만원	36(8.1)
	사무·관리직(하이직률)	85(19.2)		32501만원이상	81(18.3)
	사무·관리직(저이직률)	103(23.3)	평균(SD)	22922.6(26516.3)	
	자영업자	70(15.8)	소득 원천수	1가지	342(77.4)
	서비스판매직	10(2.3)		2가지	74(16.7)
	노무직	34(7.7)		3가지	21(4.8)
평균(SD)	15.1(2.4)	4가지		4(0.9)	
교육	중졸이하	23(5.2)	5가지	1(0.2)	
	고졸	92(20.8)	평균(SD)	1.3(0.6)	
	대졸	261(59.1)	가족원수	1명	4(0.9)
	대학원졸이상	66(14.9)		2명	45(10.2)
	평균(SD)	15.1(2.4)		3명	166(37.6)
취업자 수	1명	304(68.8)		4명	205(46.4)
	2명	133(31.2)		5명	21(4.8)
	3명	5(1.1)	6명	1(0.2)	
	평균(SD)	1.3(0.5)	평균(SD)	3.5(0.8)	

〈표 2〉 소득안정도 및 심리적 변수의 분포

	안정도			심리적 변수		
	소득안정도	직업안정도		기대감	상승감	상대적 박탈감
	N(%)	N(%)		N(%)	N(%)	N(%)
상:15~20점	159(36.0)	217(49.1)	상:7~10점	115(26.0)	86(19.5)	111(25.1)
중:11~14점	172(38.9)	141(31.9)	중:4~6점	269(60.9)	238(53.8)	167(37.8)
하:4~10점	111(25.1)	84(19.0)	하:0~3점	58(13.1)	118(26.7)	164(37.1)
평균(SD)	12.9(3.3)	15.6(3.1)	평균(SD)	4.7(1.3)	5.2(1.63)	4.5(2.8)

〈표 3〉 자산별 소유여부에 대한 logit 분석

변수	예·적금	신탁	보험	개인연금	유가증권	금융자산(계)	부동산
연령	0.03	-0.07***	-0.03	-0.03	-1.9E-03	-0.04	0.052 *
교육수준	0.13 *	0.18**	-0.04	0.06	0.19	0.16	-0.06
근로소득	6.0E-04	-1.4E-03	1.0E-04	-1.1E-03	-9.0E-04	-4.0E-04	-9.0E-04
비근로소득	4.0E-04	-4.0E-04	-1.0E-04	-9.0E-04	-1.7E-03	-0.2E-04	-8.0E-04
총자산	-8.1E-07	5.0E-06	3.7E-06	-1.2E-06	7.2E-06	9.5E-06	2.0E-04***
취업자수	-0.19	0.11	-0.21	0.12	-0.45 *	0.42	-0.04
소득원천수	0.09	0.25	0.05	-0.07	0.64 **	0.09	0.32
가족원수	0.02	0.26	0.20	0.27	0.09	-0.09	-0.10
소득안정도	0.04	0.14 *	0.10	0.10	0.03	0.02	-0.03
직업안정도	0.08	-3.7E-03	-0.02	0.03	2.4E-03	-0.04	0.06
경제적기대감	-0.11	-0.33**	0.230**	-0.13	0.02	0.01	0.09
경제적상승감	0.16 *	0.04	0.08	0.15	0.01	0.24*	0.18 *
상대적박탈감	0.06	-0.05	-0.07	1.7E03	-0.08	7.0E-04	-0.08
*직업(노무직)							
전문직	-0.14	0.90	0.27	-0.50	-0.61	0.16	-0.06
교육자	-0.17	-0.33	0.89	-0.40	-0.16	-0.15	0.45
공무원	0.25	0.02	1.05	-0.64	0.09	-0.12	1.93 *
고위관리직	-0.13	-0.23	0.40	0.26	-0.44	9.0E-04	2.64 *
사무관리직(1)	0.47	0.15	0.92	-0.85	-0.12	0.93	0.72
사무관리직(2)	0.18	0.05	1.21 *	-0.41	0.92	0.97	0.56
자영업자	-0.63	0.80	0.94 *	-0.02	0.42	0.11	1.04
서비스 판매직	-0.85	-4.91	1.47 *	-0.29	0.01	-0.45	0.60
Constant	-3.50	-0.34	-3.71	-2.98	-3.19	-1.33	-6.70
$\rho^2$	0.09	0.21	0.06	0.09	0.15	0.17	0.60
$\chi^2$	37.62 *	93.66 ***	28.54 *	46.34 **	79.09 ***	38.86**	199.03 ***

p < .05 \*\* p < .01 \*\*\* p < .001

a 직업은 노무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처리하였다.

### 3. 가계자산 보유액과 구성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

가계자산 보유액과 구성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계자산 보유액과 구성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은 해당자산을 보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실시하였다. 이는 특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매우 적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로 인하여 분석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1) 자산보유액에 대한 회귀분석

각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자산보유액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와 소득 및 직업안정도, 심리적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예·적금형태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총자산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총자산이 많을수록 예·적금을 소유하는 가계의 투자액수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변수는 예·적금 투자액 분산의 12%

〈표 4〉 자산보유액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예·적금		신탁		보험		개인연금		유가증권		금융자산(계)		부동산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 령	-58.42	-0.10	-84.79	-0.11	15.06	0.12	9.85	0.10	65.43	0.17	14.32	0.02	1041.74***	0.27
교육수준	-305.12*	-0.15	-1005.2**	-0.33	8.12	0.02	-78.15	-0.25	174.79	0.12	-188.29	-0.07	1820.59*	0.16
근로소득	-1.48	-0.05	6.55	0.21	0.29	0.05	0.32	0.07	2.22	0.17	3.13	0.08	22.99	0.14
비근로소득	2.83	0.10	8.16*	0.27	1.26**	0.25	0.06	0.01	-2.26	-0.09	5.98*	0.15	-0.13	-0.01
총 자 산	0.05***	0.30	0.09***	0.47	0.004	0.12	0.01	0.15	-0.01	-0.03				
취업자수	459.77	0.05	661.40	0.06	-118.2	-0.07	110.28	0.08	-64.93	-0.01	72.92	0.01	-2816.8	-0.05
소득원천수	-579.17	-0.08	831.45	0.09	-155.9	-0.11	-219.6	-0.19	33.27	0.01	275.71	0.02	8059.04**	0.20
가족원수	-381.45	-0.07	-876.06	-0.12	91.34	0.08	48.05	0.06	-29.17	-0.01	-280.25	-0.03	1347.72	0.04
소득안정도	107.46	0.08	-279.60	-0.13	-21.00	-0.07	49.26	0.21	-110.04	-0.14	129.38	0.06	-148.87	-0.02
직업안정도	-79.89	-0.05	-64.24	-0.03	9.00	0.03	-1.06	-0.01	-23.33	-0.02	14.89	0.01	62.94	0.01
기 대 감	38.18	0.01	115.42	0.02	-69.39	-0.10	79.38	0.14	355.03	0.17	-320.00	-0.06	-993.79	-0.05
상 승 감	124.62	0.04	8.25	2.0E-3	47.74	0.09	-77.52	-0.17	-287.28	-0.15	185.03	0.04	400.18	0.02
상대적박탈감	61.13	0.07	-84.51	-0.06	8.53	0.05	-7.69	-0.06	-59.74	-0.10	-13.15	-0.01	-213.27	-0.04
*직업(노무직)														
전 문 직	922.08	0.04	3953.98	1.07	-160.9	-0.03	-37.27	-0.01	2620.2	0.19	2254.25	0.07	16476.6	0.12
교 육 자	1107.62	0.08	5917.93	1.75	113.90	0.04	269.56	0.14	438.63	0.06	2153.12	0.11	1177.04	0.01
공 무 원	893.41	0.05	2866.11	0.81	672.35	0.18	-182.1	-0.06	-569.47	-0.04	1079.59	0.04	-2384.9	-0.02
고위관리직	1391.31	0.08	2496.86	0.67	154.331	0.05	347.77	0.16	3001.5	0.37	3926.9*	0.16	10048.0	0.11
사무·관리직(1)	1599.83	0.14	3780.40	1.12	18.03	0.05	22.53	0.01	562.68	0.10	2579.12	0.15	2537.86	0.04
사무관리직(2)	394.34	0.04	4015.91	1.26	50.15	0.03	60.74	0.04	874.46	0.19	1726.26	0.11	4355.19	0.07
자영업자	1051.64	0.08	2549.78	0.82	64.63	0.03	-2.40	-0.00	367.01	0.03	1774.53	0.10	2282.87	0.03
서비스판매직	-1231.3	-0.03	0	0	-209.9	-0.03	-273.1	-0.05	0	0	-1143.5	-0.02	2412.12	0.01
Constant	5909.49		18657.48		-115.76		460.83		-3727.76		3526.84		-60223.80	
R Square	0.12		0.39		0.14		0.21		0.17		0.10		0.20	
F	2.08 **		3.81 ***		1.94 **		1.60		1.12		2.06 **		3.57***	

\* p < .05 \*\* p < .01 \*\*\* p < .001

a 직업은 노무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처리하였다.

를 설명하고 있다.

신탁상품 투자액의 설명변수는 교육수준, 비근로소득, 총자산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총자산과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변수의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보험 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근로소득으로 나타났다. 비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보험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변수의 보험

투자액에 대한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투자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근로소득, 직업으로 나타났는데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직업이 고위관리직일수록 금융자산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변수의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부동산 투자액에 유의미한 설명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천수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원천수가 많아질수록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변수의 부동산투자액에 대한 설명력은 20%였다.

## 2) 자산구성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자산구성비율은 각 자산 액수가 총자산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각 자산의 구성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투자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적금형태의 자산에 투자한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과 가구주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예·적금 비율은 줄어들고 가구주의 직업이 서비스 판매직인 경우에 노무직인 경우보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무직의 경우는 소득이 불안정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예·적금과 같이 현금화가 쉬운 자산에 보다 높은 비율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자산의 비율에 대한 영향변수는 연령,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작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신탁자산의 구성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 보다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전의 연구결과(Weagley와 Gannon, 1991; Xiao, 1995; Zhong과 Xiao, 1995; Lee와 Hanna, 1995, 정은주와 문숙재, 1992)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의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보험 투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근로소득과 가족원수로 나타났다. 비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보험의 구성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 두변수의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투자비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노무직에 비해 전문직, 교육자, 공무원이나 사무관리직, 자영업자일 경우에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에 투자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적 기대감과 상승감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과거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느낄수록 유가증권에 투자한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여러 금융자산에 투자한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직업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고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에 노무직에 비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한 비율의 설명변수는 소득원천수, 경제적 상승감, 가구주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수가 적어질수록 과거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느낄수록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커지고 가구주의 직업이 고위관리직이나 자영업자인 경우 노무직에 비해 부동산의 비율이 의미있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변수의 부동산투자비율에 대한 설명력은 13%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 가계자산의 합리적인 선택행동을 제시하고 가계투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계자산 투자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는데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계관리자가 어떤 자산을 보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보유하려는 자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신탁자산을 보유하는데 이는 아직 가계의 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여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산선택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유가증권과 신탁, 개인연금을 보유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이러한 자산의 홍보와 교육

〈표 5〉 자산구성비율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예·적금		신탁		보험		개인연금		유가증권		금융자산(계)		부동산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연 령	-0.06	-0.04	-0.50*	-0.28	-0.02	-0.03	-0.01	-0.01	-0.08	-0.05	-0.29*	-0.13	0.13	0.07
교육수준	-1.07**	-0.19	-1.85*	-0.26	-0.09	-0.04	-0.39	-0.21	0.24	0.04	-0.78	-0.11	0.50	0.08
근로소득	-3.1E-4	-0.01	0.01	0.11	5.4E-4	0.02	6.8E-4	0.03	0.01	0.22	3.8E-3	0.04	-0.01	-0.14
비근로소득	0.01	0.09	0.01	0.17	0.01**	0.23	2.8E-3	0.11	-0.01	-0.13	0.01	0.06	0.01	0.03
총 자 산	-1.8E-5	-0.04	-6.6E-6	-0.01	-2.0E-5	-0.12	-2.9E-5	-0.17	-5.7E-5	-0.19	-5.7E-5	-0.09	4.8E-5	0.10
취업자수	-0.39	-0.02	2.04	0.08	-0.36	-0.04	0.54	0.07	2.29	0.10	-0.90	-0.03	0.56	0.02
소득원천수	-0.29	-0.02	2.47	0.12	-0.92	-0.13	-0.26	-0.04	1.11	0.05	0.71	0.03	-3.56*	-0.18
가족원수	-0.85	-0.05	-0.24	-0.01	0.74*	0.14	0.57	0.12	0.63	0.05	1.07	0.05	-0.55	-0.03
소득안정도	-0.15	-0.04	-0.45	-0.10	-0.24	-0.17	0.08	0.06	-0.55	-0.16	0.29	0.06	0.08	0.02
직업안정도	-0.07	-0.02	0.01	0.01	-0.10	-0.06	0.12	0.07	-0.05	-0.01	0.20	0.04	0.45	0.10
기 대 감	0.11	0.01	1.49	0.13	-0.15	-0.04	0.34	0.10	2.91**	0.32	-0.20	-0.01	-0.76	-0.07
상 승 감	0.18	0.02	-1.31	-0.15	0.22	0.08	-0.20	-0.08	-1.62*	-0.20	-0.08	-0.01	-1.33*	-0.15
상대적박탈감	-0.01	-0.01	-0.58	-0.17	0.05	0.06	0.05	0.06	-0.36	-0.14	-0.14	-0.04	0.36	0.13
*직업(노무직)														
전 문 직	0.07	0.00	7.49	0.14	-2.12	-0.08	-5.32*	-0.25	4.43	0.07	0.40	0.01	-7.65	-0.11
교 육 자	0.53	0.01	9.76	0.27	-0.68	-0.05	-3.60*	-0.33	-3.17	-0.10	-1.39	-0.03	-8.13	-0.20
공 무 원	-2.89	-0.06	0.92	0.02	0.03	0.00	-5.14*	-0.28	-2.97	-0.04	-6.46	-0.09	-6.49	-1.13
고위관리직	-3.61	-0.08	2.05	0.05	-1.10	-0.06	-3.43	-0.28	7.49	0.15	-5.66	-0.09	-10.2*	-0.23
사무·관리직(1)	-0.32	-0.01	5.64	0.19	0.10	0.01	-3.47*	-0.31	-0.12	-0.04	0.69	0.02	-8.13	-0.23
사무관리직(2)	-3.39	-0.12	5.74	0.21	-1.20	-0.12	-3.58*	-0.41	1.29	0.06	-1.63	-0.04	-7.99	-0.25
자영업자	-3.85	-0.10	4.12	0.10	-0.84	-0.07	-4.56**	-0.39	-2.59	-0.07	-3.85	-0.08	-8.09*	-0.22
서비스판매직	-12.0*	-0.11	0	0	-4.28*	-0.14	-5.23	-0.15			-14.64*	-0.11	5.13	0.43
Constant	33.28		54.75		8.81		6.14		-8.00		38.28		103.35	
R Square	0.07		0.15		0.13		0.27		0.20		0.07		0.13	
F	1.21		1.03		1.82**		2.14**		1.40		1.40		2.00**	

\* p < .05 \*\* p < .01 \*\*\* p < .001

a 직업은 노무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처리하였다.

이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교육수준의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연금은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은퇴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가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6가지 자산의 보유액을 살펴보면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소득 및 직업안정도, 심리적 변수

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개인연금의 차이를 보면 가계의 은퇴를 위한 자산 준비가 3,40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곧 은퇴를 맞게 되는 50대 가계에서는 개인연금보유액이 적어서 장년층을 위한 노후대비 교육과 노후대비 상품의 개발과 홍보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30대 전후의 가계에서 유가증권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서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장년층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비로 인한 부담이 커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시기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로 은퇴를 위한 연금 뿐만 아니라 예·적금이나 신탁과 같은 안정성과 환금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신문매체나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탁과 유가증권의 경우는 교육수준에 따라 보유액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가계자산에 대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하는데 고소득인 가계는 이미 형성된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때 자산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소득을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근로소득은 자산보유액과 구성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총자산 규모는 개별자산의 합이기 때문에 총자산의 증가는 여러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데 자산의 수준이 커지면서 다양하게 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가계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가계자산의 관리에 대한 연구가 총자산 중심보다는 자산형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객관적인 안정성 측정을 위하여 이직률과 일반적인 정년 보장에 대한 정보로 세분하였는데 이 분류로 직업에 대한 안정도나 경제적인 차이가 충분히 구분되지는 못했지만 직업간에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문직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되고 직업의 안정도가 높기 때문인지 은퇴에 대한 준비가 낫았고 사무·관리직에서 이직률로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들간에 위험도가 높은 신탁이나 유가증권에서 차이를 보여서 직업의 안정도가 자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연

구와 측정의 정교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소득 대한 안정도가 높을수록 자산의 보유액이 증가하였는데 소득에 대해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장기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계자산운용에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경제적인 변화를 겪기 전까지는 소득에 대한 막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던 가계들이 소득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실제로 소득의 감소를 겪으면서 가계의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계가 자산의 올바른 선택과 소득의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직업에 대한 안정도는 높게 나타나 안정적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의 실업불안과 명예퇴직 현상이 개별가계에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아직도 평생직장의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여서 지금의 가계들이 느끼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자산선택행동에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가계 재무관리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부동산의 보유액이 경제적상승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생활수준의 상승은 거의 부동산의 크기와 비례하며 이러한 경향은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은 가계의 자산규모로 볼 때 과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라는 의미는 부동산관리라는 의미와 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에 대한 높은 선호도 때문인 것으로 사실상 다른 금융자산도 어떤 의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도 있다.

셋째, 총자산에 대한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자산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예·적금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소득 및 직업 안정도, 심리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적금의 특성상 소액인 경우가 많고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투자액이 클 경우에는 다른 자산유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수익성이 높고 고액의 투

자를 요구하는 신탁과 유가증권은 가계의 특성에 따라 투자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수준에 있을 경우에 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도가 있는 자산의 보유비율이 높아져서 가계의 전체적인 복지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자산 선택행동이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산의 보유액에서 차이를 보이던 부동산의 경우에는 총자산에 대한 각각의 자산의 구성비율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계자산의 연구에 있어서 자산의 투자비율에 대한 분석은 금액으로만 분석하였을 때 총자산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각각의 자산투자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효과를 없앨 수 있다. 금액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율에 의한 분석을 하므로써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재무관리를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가계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가계재무상담이나 앞으로의 가계자산관리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계재무상담자는 가계의 자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계의 사회경제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소득의 안정도와 직업의 안정도를 고려하여 상담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시 기대감과 상승감,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간단한 측정을 통하여 개별가계의 특성을 좀 더 실제에 가깝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가계는 경제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가정할 때 가계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가계재무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 동안 가계의 경제적 안정은 자산의 축적 정도로 분석되어 왔는데 기존의 자산으로 인한 안정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와 직업유형에 따른 안정도는 어느정도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개념과 척도의 정교화가 이루어진다면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계자산을 6가지로 나누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가계의 자산은 한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자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을 여러자산의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이런 유형을 갖는 가계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도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의 경우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계 또는 사채도 가계자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의 사적인 이전, 즉 유산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갖게된 경우에 어떤 차이를 둘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가계자산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계자산의 선택은 가계의 재무목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무목표에 대한 고찰이 없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산선택과 재무목표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강혜경(199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3), 87-103.
- 2) 김정숙(1996). 주부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2), 245-259
- 3) 박연수(1997). 씹지돈 굴리는데는 금융상품이 최고다. 현대미디어.
- 4) 신한경제연구소(1998). IMF 시대의 생활경제, '축소균형의 모색'. 신한리뷰 1998년 봄호
- 5) 양세정·이영호(1995).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2), 201-215
- 6) 양세정·주인숙(1994). 가계저축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62-71.
- 7) 양정선(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및 투자행동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8) 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영·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 9) 장하성 · 지청(1995). 재무관리. 법경사.
- 10) 정은주 · 문숙재(1992). 가계투자행동의 인과적 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30(1), 219-234.
- 11) 통계청(1998). 1997 한국의 사회지표
- 12)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13) Chang, R. Y. & Linamood, S.(1993). Factors Related to the Risk of Household Income Variabilit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47-66.
- 14) Chang, R. Y.(1994). Saving Behavior of U.S. Households in the 1980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45-64.
- 15) Chang, R. Y. & Hanna, S.(1994). Factors Related to Household Saving.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48-155.
- 16) Davis, E. P. & Walter R. Schumm(1987). Savings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Savings: A Comparison of Low- and High-Income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47-256.
- 17) Hanna, S., Fan, J. X. & Chang, R. Y.(1995). Optimal Life Cycle Saving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15
- 18) Hanna, S. & Chen, P.(1996). Efficient Portfolio for Saving for Colleg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5-122
- 19) Heffran, C.(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
- 20) Kansas State U. Extension Services(1996). *Investment Basics*.
- 21) Katona, George(1974).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8
- 22) Lee, H. & Hanna, S.(1995). Investment Portfolios and Human Wealth.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47-152.
- 23) Lee, S. M. & Zelenak, M. J.(1987). *Personal Finance for Consumers*. Publishing Horizons.
- 24) Sullivan, C & Worden, D. D.(1986) :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Working Paper No.52 Purdue University
- 25)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4), 309-318.
- 26) Weagley, R. O. & Gannon, C. 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154.
- 27) Xiao, J. J.(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99-106.
- 28) Xiao, J. J.(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21-30
- 29) Xiao, J. J. & Malroux, L.(1994). Saving Motives and Saving Behavior of the Elderly.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56-163.